

---

# Part I

•

운문 문학 개념어

---

**시(詩) 문제 풀이 방법**

- [1st] 제목 확인
- [2nd] 발문 읽기  
⇒ 선택과 집중 & 전략 수립
- [3rd] <보기> 참고 → 작품 감상
- [4th] 문제 풀기

**시(詩) 감상법**

**이야기로 풀기(대~~중)**  
: 화자 → 대상 + P

- ① 시 · 공간 check
- ② 반복 check
- ③ [⊖배경(⊖분위기) → ⊖心 or ⊖처지]

**'시조, 가사의 형식적 특징'**

- ① 정형시 : 4음보, 3(4) · 4조
- ② (비유), 설의, 영탄, 대구, 의인 多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정답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답선지

- ① 의성어, 의태어
- ② 반어, 역설
- ③ 대화(대화체)
- ④ 공감각적 표현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제 해결 방법(순서)

- ① 답선지[先] → 작품 감상[後]  
or
- ② 작품 감상[先] → 답선지[後]

● 드러내고 있다.  
● 직접적 or 간접적

○ 운문 문학 개념어

{ **출제 유형에 따른 공부 방법** }

○ 들어가기 전에 답선지 공략

① 답선지 구성 방식

- ① 내용 only    예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② 형식(+효과)    예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형식 + 내용    예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

② 답선지 읽는 방법

• 답선지를 끊어 읽는다. ⇒ 답선지를 끊어 보고, 각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작품과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1. 표현상의 특징

(1)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 : 지배적(핵심적)인 형식(or 내용)

- ① 작품 전체의 흐름(시상 전개 방식)이 드러난 경우
- ② 자주 등장하거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표현인 경우

알아두기

'적절한 것은?'을 묻는 문제 ⇒ 정답(최근 10년간 수능)

- ① 이미지 : 감각적, 계절적, 시각적 이미지
- ② 반복 : 유사한 어구(구절)의 반복
- ③ 대비(대조) :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
- ④ 비유와 상징
- ⑤ 수미상관
- ⑥ 설의, 영탄
- ⑦ 어조 : 독백적 어조

(2) 심중팔구 맞는 표현상의 특징 ⇒ 신경 쓰지 말고 pass~~

알아두기

심중팔구 맞는 표현

- 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 ~
- ② ~ /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 /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 / 화자의 심정(정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시적 상황(분위기)을 드러내고 있다.
- ⑥ ~ /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⑦ 반복하여 / 리듬감(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or 강조(부각)하고 있다.

→ 기출 답선지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학년도 수능(A)

- ① 자조적 표현을 통해 /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성어를 활용하여 /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 ③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 작품 간의 공통점

- (1) '적절한 것은?'을 묻는다.
- (2) **내용**을 묻는지, **형식**을 묻는지 먼저 확인한다. ⇨ 선택과 집중

→ 기출 답선지

38.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학년도 수능(AB)

-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29.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7학년도 수능

- ✓ ① 비유와 상징을 통해 /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공감각적 표현으로 /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31번 작품  
 • 이형기, 「낙화」

내용상의 공통점  
 ① '주제'를 묻는 경우가 많다.  
 ② '대상 + P'를 활용한다.

38번 작품  
 • (가):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에~」  
 • (나):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 (다): 원천석, 「홍망이 유수하니~」

29번 작품  
 • (가): 이육사, 「교목」  
 • (나): 신석정, 「들길에 서서」

### 3. 작품 간의 비교

#### (1) 답선지 구성 방식

- ① 1작품의 특징
- ② 2작품 간의 공통점
- ③ 2작품 간의 차이점

→ 기출 답선지

#### 40번 작품

- (다) : 원천석, 「홍망이 유수하니~」
- <보기> : 정극인, 「상춘곡」

#### 비교

- 공통점 or 차이점

#### 41번 작품

- (가) : 조지훈, 「파초우」
- (나) : 곽재구, 「사평역에서」

- A는 B와 달리~ / A는 B에 비해~
- A를 먼저 check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 38번 작품

- (가) : 유치환, 「생명의 서 · 일장」
- (나) : 신경림, 「농무」

####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학년도 수능(AB)

- ① (다)와 <보기>는 /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 4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학년도 수능(B)

- ① (가)는 (나)와 달리 /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 시상이 전개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가 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 ③ (가)는 하강의 이미지를, / (나)는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적 관심을 나타낸다.
- ✓ ④ (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 (나)는 과거의 순간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하여 독백적 어조에 변화를 준다.

#### 3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년 9월 시행 모평(B)

- ① (가)는 /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나)는 /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준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 ④ (나)는 (가)와 달리 /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 ⑤ (가), (나)는 모두 /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 1

## 시적 화자의 정서 · 태도

### 1. 감정 표현 방법

- 직접적 ↔ 간접적

직접적 표현	'기쁘다, 행복하다, 슬프다[한(恨)], 외롭다' 등의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
간접적 표현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표현

#### → 기출 답선지

①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09학년도 수능

주요	㉠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 김광규, 「나뭇잎 하나」

② 작품 중간에 감정을 직접 드러낸 표현을 넣는다.

06학년도 수능

예)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늘 그대 뒤를 따르던 / 길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 주던 돌들이 /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 성긴 눈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의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③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군.

14년 6월 시행 모평(B)

예)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울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어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규, 「와사등」

#### 정서 vs 태도

정서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에 대해 느끼는 <b>감정(기분)</b>
태도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에 대해 갖는 <b>자세(대응 방식)</b>

예) 이별 → 슬픔 ⇨ 정서  
 ↳ 좌절 or 극복 의지 ⇨ 태도

- ① 평가원에서는 '정서'와 '태도'를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한 적이 없다.
- ② 정서 · 태도 : '주제, 어조와 관련이 있다.'

#### '감정의 직접적 표출'의 좋은 예

예 (1)  
 여승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냇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 백석, 「여승」

예 (2)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울며 잡고 이  
 별한 임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나**생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  
 노매  
 - 계량의 시조

- 빈번하게(빈번한, 다양한)
- '빈번하게(빈번한, 다양한)'는 모호한 용어이다. 아마도 3번 이상을 의미하는 듯하다.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 ① 묘사
- ② 비유 · 상징
- ③ 객관적 상관물(▷ 감정 이입)

④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8년 6월 시행 모평

예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흠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물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

- 나희덕, 「못 위의 잠」

⑤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06년 9월 시행 모평

## 2. 감정 절제

- 감정 절제의 여부는 어조(분위기)로 파악한다.

감정이 절제된 표현	감정을 표출하지 않음. ⇨ <b>담담한(차분한) 어조</b>
감정이 절제되지 않은 표현	감정을 드러냄(직접적 or 간접적) ⇨ <b>영탄적(격정적) 어조</b>

### ○ '감정 절제의 좋은 예

관(棺)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 주고  
**나는 옷자락에 흠을 받아**  
**좌르르 하직(下直)했다.**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  
 불렀다.  
 오오냐. 나는 전신(全身)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네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톡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 박목월, 「하관(下棺)」

### → 기출 답안지

- ①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07학년도 수능

- ②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04학년도 수능

예)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졌네  
 외로운 배 안의 도롱이 입은 늙은이  
 홀로 낚시질하네 찬 강엔 눈만 내리고

- 유중원, 「강설(江雪)」

- ③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2년 9월 시행 모평

- 감정을 절제하지 않은 작품  
 ⇨ 감정의 간접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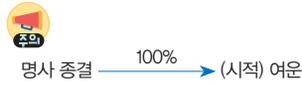
예 (1)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자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  
 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 정지용, 「향수」

예 (2)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  
 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둠 속에  
 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火山)이 일  
 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姿勢)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서정적  
 • 사전적 의미 :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또는 그런 것.  
 † 이 노래 가사는 참 서정적이다.  
 • 서정적 ≙ 시적, 목가적

- 시적 여운
- 화자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시행을 종결할 때 시적 여운이 생긴다.
- 명사 종결, 묘사(형상화), 말줄임표

예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3. 명사 종결

- 시행의 마지막을 명사로 종결(서술어 생략) ⇨ 시적 여운

#### → 기출 답선지

① 마지막 행을 명사로 끝맺어 / 여운을 준다.

06학년도 수능

예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의 **눈**.

- 황동규, 「조그만 사랑 노래」

②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0년 9월 시행 모평

**주의** 오이밭에 별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솔밭에 **빠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리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담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백석, 「적막강산」

③ 명사로 끝맺은 시행을 반복하여 / 시적인 여운을 준다.

09년 6월 시행 모평

예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평평 쏟아져 날아오듯 텁버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 최승호, 「대설주의보」

#### 4. 긍정적 의미

##### (1) 낙관적(樂觀的) [↔ 비관적(悲觀的)]

- 낙관(樂觀) : 긍정적인 상황(주로 미래)에 대한 기대나 확신이 드러나는 태도

→ 기출 답선지

- ①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11학년도 수능
- ②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나타나 있다. 07학년도 수능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가 드러나 있다. 06학년도 수능
- ④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드러나 있다. 05학년도 수능
- ⑤ (가)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가, (나)에는 **비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11년 6월 시행 모평
- ⑥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08년 9월 시행 모평

**주의**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밧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이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이**  
-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 (2) 대상과의 조화(調和)[≡ 합일(合一), 일체감(一體感)]

→ 기출 답선지

- ①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11학년도 수능
  - ②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1년 9월 시행 모평
- 예**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  
하물며 **전석고황을 고쳐 무엇 하리**
-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배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 이황, 「도산십이곡」
- ③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09년 9월 시행 모평

**예**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 이현보, 「어부단가」

##### ▶ 낙관적 vs 비관적

낙관적	비관적
희망이 보여. ^^ 잘 될 거야. ^^	슬퍼. T.T 난 안 돼. T.T

- ◆ 낙천적(樂天的)
  -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또는 그런 것
  - → 염세적(厭世的)

##### ▶ 낙관적 vs 낙천적

낙관적	낙천적
미래	현재

##### ▶ 조화 ≡ 합일 ≡ 일체감

- 너처럼 되고 싶어.
- 너와 함께하고 싶어.

▶ '관조적 태도(자세)'의 좋은 예

예 (1)

겨울 문외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받는 것을.  
 끝까지 사절하다가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외여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  
 을 덮겠느냐.  
 - 고은, 「문의(文義) 마을에 가서」

예 (2)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 김소월, 「산유화」

(3) 관조(觀照)

- 사전적 의미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이다.
- 이를 참고할 때 '관조적 태도'는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에 대해 생각에 잠기는 태도'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이 정의에서는 다음의 2가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 (ㄱ) 관조의 '대상'은 ①인생(삶, 죽음), ②자연(자연 현상, 자연의 섭리), ③예술(예술 작품) 등인데, 수능에서는 ①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화가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삶' 혹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관조적 태도'이다.
  - (ㄴ) '관조적 태도'의 의미를 이해할 때 '고요한 마음'이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즉, '관조적 태도'가 드러난 작품에서는 **화자의 목소리(어조)가 너무 걱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에 대해 생각에 잠기는 것이므로 정서·태도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면 '관조적 태도'라 할 수 없다.

→ 기출 답선지

① **관조적인 자세**로 /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09학년도 수능

예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② 과거의 고난 체험에 대한 / **관조적 심정**을 보여 주고 있다.

08년 9월 시행 모평

③ [A], [B]에서는 모두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07년 9월 시행 모평

④ 시적 화자가 **대상을 관조**하고 있다.

04년 6월 시행 모평

(4) 반성(反省)·성찰(省察)

- 반성 :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켜 봄.
- 성찰 :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핍**.  
 ⇨ 자신의 **잘못 or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

→ 기출 답선지

① 연을 구분하지 않고 / **성찰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12학년도 수능

**예**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쭉글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찌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 객재규, 「구두 한 켤레의 시」

②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08학년도 수능

**주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 김수영, 「사령」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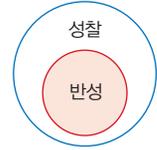
- 권호문, 「한거십팔곡」

③ 일상적 소재를 위주로 하여 /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07학년도 수능

④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10년 6월 시행 모평

⑤ **자아 성찰**을 위한 내면의 공간이 나타난다. 09년 6월 시행 모평

반성 vs 성찰



'반성·성찰'의 좋은 예

**예**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옥될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  
 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  
 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 윤동주, 「참회록」

반성 = 후회

반성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켜 봄. 예) 일기
후회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6 박인로, 「누항사」  
- 앞부분의 내용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두 주먹 비게 쥐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  
습도 못 고우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  
을쓰나**  
아까운 저 정기는 벗보임도 좋을시고  
가시 영긴 묵은 밭도 쉽사리 갈련만은  
뒹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라  
봄갈이도 끝나간다 후리 처 던져두자

'자연 친화'의 좋은 예

예 (1)  
십 년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淸風)** 한 간  
맡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데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 송순의 시조

예 (2)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 윤선도, 「오우가」

6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개선하고자 한다.

08년 6월 시행 모평

예 강호 한 꿈을 끈 지도 오래려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할샤  
홀륭한 군자들이야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 박인로, 「누항사」

7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03년 9월 시행 모평

예 농가의 좋은 흥미 저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을 것을**  
백운(白雲)이 즐기는 줄 청운(靑雲)이 알 양이면  
꽃 탐하는 벌나비 그물에 걸렸으랴

- 안조원, 「만연사」

(5) 자연 친화(자연 친화적 삶)

- 자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태도
-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or 자연을 벗 삼아) 살고 있거나 살아가려는 태도  
⇨ 물아일체(物我一體)

→ 기출 답선지

1 화자와 대상의 거리를 좁혀 /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08년 6월 시행 모평

2 화자는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군.

07년 9월 시행 모평

예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빠 다니지 않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음을 찾아다녔네.**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에 안개가 천 리에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초록 도롱이 푸른 샷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어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 설장수, 「어옹(漁翁)」

3 **자연 친화 의식**이 드러나 있다.

06년 6월 시행 모평

예 남여(藍輿)를 재촉해 타고 술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綠楊)에 우는 황앵(黃鶯)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綠陰)이 영긴 적에**  
**백적(白積) 난간에 긴 조으름 내어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 송순, 「면양정가」

4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05년 6월 시행 모평

(6) 이상(이상 세계, 이상향)에 대한 동경(추구, 지향)

- ‘이상(理想) · 이상향(理想郷)’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사회)’이다.  
⇒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세계**’ 정도로 이해하면 쉽다.
- 화자가 처해 있는 시적 상황은 부정적이고(⊖현실), 화자는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고전 문학 : 무릉도원 ⇒ 이상(이상향, 이상 세계)

→ 기출 답선지

①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10학년도 수능

예)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 조지훈, 「승무」

② **이상향에 대한 동경**의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다. 03학년도 수능

예)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넉엔 /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때 하나가 /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③ **이상을 추구**하면서 /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04년 9월 시행 모평

주의)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냇을 살게 하자**.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냇을 살게 하자**. - 조지훈, 「마음의 태양」

▶ '이상향'에 대한 동경과 좌절

예 (1)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흐드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뜻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 유치환, 「깃발」

예 (2)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예 (3)  
향단(香丹)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로 가는 달 갈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동양적 이상향의 모습

예)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端水)**를 예 든  
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뜬 맑은 물에 **산영(山影)조차**  
**잠겼어라**.  
아희야, **무릉(武陵)**이 어디메오 나는 엔  
가 하노라.  
- 조식의 시조

(4) **시상 전환** : 핵심 정서나 태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정서 ⇌ ⊕ 정서). 이때 정서 · 태도는 어조(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 기출 답선지

① 고향의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 **시상을 반전**시키고 있다. 13학년도 수능

② (가)의 '바람'과 '파람'이 **시상을 전환**시키는 데 비하여, (나)의 '청풍'과 '파람'은 **시상을 매듭**짓는다. 03학년도 수능

주요	<p>(가)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코 / <b>바람</b>도 쉼이 하고 달도 맞으려코 밤으란 언제 줌고 고기란 언제 낚고 / 시비란 뒤 닫으며 진 꽃으란 뒤 쓸려노 아침이 낮브거니 저녁이라 싫을소냐 / 오늘이 부족커니 내일이라 유여하랴 이 뉘에 앉아 보고 저 뉘에 걸어 보니 / 번로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 누우락 앉으락 굽으락 젓히락 / 읊으락 <b>파람</b>하락 노혜로 놀거니 천지도 넓고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span style="float: right;">- 송순, 「면양정가」</span></p>
	<p>(나)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쥘 대로 쥘다 <b>청풍</b>에 옷깃 열고 긴 <b>파람</b> 흘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span style="float: right;">- 위백규, 「농가」</span></p>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12년 6월 시행 모평

(5) **시상 마무리** : 시상을 어떤 방식(명사, 묘사, 설의적 표현 등)으로 끝맺는지를 묻는다.

→ 기출 답선지

① **고향을 떠나올 때의 장면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13학년도 수능

예	<p>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짜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span style="float: right;">-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span></p>
---	--

② **의문형으로 시상을 매듭**지어 /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03학년도 수능

③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05년 6월 시행 모평

예	<p>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b>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b> <span style="float: right;">- 김기림, 「바다와 나비」</span></p>
---	---

📌 '시상 전환'의 좋은 예

예 (1)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 어부었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예 (2)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시적 여운
- 화자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시행을 종결할 때 시적 여운이 생긴다.
- 묘사(형상화), 명사 종결, 말줄임표

☛ '수미상관'의 또 다른 예

예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플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우리는 머리맡에 엎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플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이용악, 「플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7. 수미상관(= 수미상응)

- 시의 처음과 끝부분에, 형태적 · 내용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시구(문장)를 배치하는 방식
- 형식 : 리듬감, 구조적(형태적) 안정감  
 ↳ 내용 : 정서 · 태도 강조(심화, 고조)

→ 기술 답안지

①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08학년도 수능

예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동」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랑」

②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13년 6월 시행 모평(AB)

③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2년 6월 시행 모평

④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06년 9월 시행 모평

예 향단(香丹)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5 첫 연과 끝 연이 상응하는 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04년 9월 시행 모평

예)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냇을 살게 하자.

: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냇을 살게 하자.

- 조지훈, 「마음의 태양」

8. 점층(적 반복)

- (반복을 바탕으로) 표현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

- 형식 : 길이를 늘임.

or

- 내용 : 정도를 높임.

→ 기출 답안지

1 점층적 강조를 통해 /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7학년도 수능

예)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 촉루(空山觸露)같이 임자 없이 구르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에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있어  
바람비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윤회 만겁(輪廻萬劫)하여 금강산 학(鶴)이 되어  
일만이천 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임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 조위, 「만분가」

2 반복과 점층적 표현으로 /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14년 9월 시행 모평(A)

예)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

'점층적 반복'의 좋은 예

예 (1)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김수영, 「눈」

예 (2)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 정몽주, 「단심가」

# 3

## 수사법

### 1. 비유(比喻)와 상징(象徵)

비유	상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떤 대상을 비슷한(형태, 속성, 과정 등) <b>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b>하는 기법                      ⇨ 원관념과 보조 관념 : 유사성 有</li> <li>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추상적인 의미(관념, 사상 등)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b>하는 기법</li> <li>원관념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li> <li>보조 관념은 다의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li> </ul>

평가원에서는 '비유'와 '상징'을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한 적이 없다.  
 ⇨ 중요한 것은 **문맥을 통해 비유적·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 기출 답선지

① 비유를 통해 /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 14학년도 수능(B)

②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8학년도 수능

예	㉠	㉡
	간—여름 해 황망히 나라를 접고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 김광균, 「와사동」	- 권호문, 「한거십팔곡」

③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08년 6월 시행 모평

예	(가)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승 → <b>넋날같이</b> 늙었다</li> <li>화자(나) → <b>불경처럼</b> 서러워졌다</li> <li>지아비 → <b>섭벌같이</b> 나아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버지 → 못 위에 앉아 꾸벅거리고 있는 <b>제비</b></li> <li>어머니 → 반쪽 난 <b>달빛</b></li> </ul>
	- 백석, 「여승」	- 나희덕, 「못 위의 잠」

④ **비유와 상징**을 통해 /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07학년도 수능

예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湖水)**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 이육사, 「교목」

#### 비유의 종류

- 은유, 직유, 의인, 활유, 대유, 풍유, (종의)
- 평가원에서는 '비유'를 '은유, 직유'로 제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cf. 의인, 활유)

#### 은유법

-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한 은유법

예 • 철의 여인  
 • 무쇠의 주먹

#### 중의법

- 중의법은 비유법에 포함되지만 평가원에서는 중의법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없다.

예 청산리(靑山裏) **벽계수(碧溪水)**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一到滄海)**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明月)**이 만공산(滿空山)하니 쉬어 간들 어찌리.  
 - 황진이 의 시조

#### '상징'의 종류

- ① 관습적 상징
  - 예 비둘기 = 평화  
 매화 = 절개
- ② 원형적 상징(신화적 상징)
  - 예 물 = 정화, 생명, 죽음, ……
- ③ 개인적 상징(문학적 상징)
  - 예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모란' = 소망, 절대적 가치, ……

⇨ 평가원에서는 '상징'의 종류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없다.

#### 비유 vs 상징

	원관념	보조 관념
비유	1	1
상징	多	1

5 [A]와 [C]에서 봄은 모두 /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

11학년도 수능

6 직유를 통해 /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10학년도 수능

7 화자의 체험을 /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7년 9월 시행 모평

**주의**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頰)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라온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 만(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었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우의(寓意, allegory)

•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사물에 빗대어 (의탁하여) 표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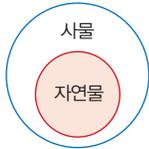
▶ '의인' 한눈에 보기

직접 의인	사물이 사람처럼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기법
간접 의인	사물을 단순히 '너', '그' 등으로 지칭하는 기법

▶ 의인 vs 활유

의인	활유
사람 × → 사람 ○	무생물 → 생물(동물)
예) 바위가 웃는다.	예) 바위가 숨 쉰다.

▶ 사물 vs 자연물



▶ 의인 vs 감정 이입

• '의인'과 '감정 이입'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개념이므로, '감정 이입 = 의인'으로 공식화하여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의인 ⊂ 비유
감정 이입 ⊂ 객관적 상관물

▶ 의인 vs 사물에 말을 건네는 방식

• 의인 ≠ 사물에 말을 건네는 방식

2. 의인(擬人) · 활유(活喻)

(1) 의인(화) : '사물(자연물, 인공물)'을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는 기법

(2) 활유 : '무생물'을 '생물(동물)'처럼 표현하는 기법

- 고전 시기에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많기 때문에 의인(화)이 많이 쓰인다.

→ 기출 답선지

① 의인화를 통해 /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11학년도 수능

예)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 정극인, 「상춘곡」

② (가)와 (나)는 의인화를 통해 /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08학년도 수능

주인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간—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잡고  
 들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 김광균, 「와사동」

(나)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 김수영, 「사령」

③ 대상을 의인화하여 / 대상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13년 9월 시행 모평(AB)

예) 빙자옥질(冰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안민영, 「매화사」

\* 빙자옥질: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름다운 성질.

\* 아치고절: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④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3년 9월 시행 모평(A)

5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12년 6월 시행 모평

주요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입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 정철, 「사미인곡」

6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0년 6월 시행 모평

7 의인화된 사물을 등장시켜 /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09년 6월 시행 모평

예 바깥은 거친 들 이리떼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떼들 쏘다다니어  
내 기린(麒麟)\*은 맘돌 곳 몸돌 곳 없어지다

- 김영랑, 「거문고」

\* 기린 : 성인이 이 세상에 나를 징조로 나타낸다는 상상 속의 동물.

8 의인화된 청자에게 /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08년 9월 시행 모평

예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단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 서정주, 「꽃밭의 독백 - 사소(娑蘇) 단장」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 작은 손들이  
손을 타고 흐르는 숨죽인 흐느낌이  
어둠과 비바람까지도 삭여서  
더 단단히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산바람 바닷바람보다도 짓궂은 이웃들의  
비웃음과 발길질이 더 아프고 서러워  
산비알과 바위너설에서 목 움츠린 나무들아  
다시 고개 들고 절로 터져 나올 잎과 꽃으로  
숲과 들판에 떼 지어 설 나무들아

-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뉘대를 펼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뉘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 안조원, 「만연사」

9 활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04년 9월 시행 모평

예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

- 김광규, 「때」

● 친근감

- 김영랑의 「거문고」에서 '친근감'을 느끼는 주체는 '독자'이다.
- 사물을 의인화하면 독자는 그 사물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 생동감(生動感)

- 사전적 의미는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다.
- 평가원에서는 '생동감'과 관련된 용어로 다음과 같은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음성 상징어(의성어, 의태어)
  - ② 역동적(力動的) 이미지
  - ③ 감각적 언어를 사용한 구체적 묘사
    - 예 계절적 배경의 구체적 묘사
  - ④ 활유

열거 vs 반복

열거	반복
형태적으로는 다르나,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말	형태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말

3. 열거(列舉)

- 내용적으로 연관된(비슷한) 단어나 구절을 늘어놓음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는 기법

→ 기출 답선지

① 고향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재들을 열거하고 있다.

13학년도 수능

예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왓자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②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13년 6월 시행 모평(AB)

예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짚어다가,  
 아홉 솔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4. 대구(對句)

- 비슷하거나 동일한 구조를 가진 어구를 짝지어서 표현하는 기법
- 필연적으로 리듬감이 생긴다.

→ 기출 답선지

① 대구와 부드러운 어감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2학년도 수능

예)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벼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② 대구적 표현을 통해 /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13년 9월 시행 모평(A)

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③ 대구의 방식으로 /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13년 9월 시행 모평(B)

예)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 신경림, 「농무」

④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 리듬감을 주고 있다. 10년 6월 시행 모평

⑤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09년 9월 시행 모평

예) ┌──────────┐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  
└──────────┘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 이현보, 「어부단가」

▶ '대구' 한눈에 보기

좌우(한 행)	상하(두 행)
┌───┐         └───┘	┌───┐         └───┘

▶ 대구 vs 열거

대구	열거
짜지어서 나열	단순한 나열

'대구'이면서 '열거'일 수도 있다.

▶ 대구 vs 대조

대구	대조
only 형식	내용, 이미지

▶ '대구'는 형식(구조)으로 판단하지만, 내용상으로 유사한 구절이 짝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의 vs 문답

	Q	A
설의	0	X
문답	0	0

● **홍진(紅塵)**  
 • 속세. 한자로 '진[塵, 먼지(티끌)]이 나오면 무조건 '속세'를 의미한다.  
 • 비슷한 말 : 풍진(風塵), 진세(塵世), 진계(塵界), 사바(娑婆), 고태(苦海)

5. 설의(說義)

-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작자의 생각을 **강조**하는 기법  
 ⇨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기법
- ① 물음표[?], ② 의문형 종결 어미['-(이)니까', '-(이)라고', '-(이)르꼬' '-(으)라', '-(으)리', '-르쏘냐']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기출 답선지

①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11학년도 수능

**예**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홍이야 **다를쏘냐**. - 정극인, 「상춘곡」

(나)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비꿀쏘냐**.  
 :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라**.  
 :  
 아무리 메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 김광옥, 「울리유곡」

② 의문형 진술을 통해 /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02학년도 수능

**예** 진주 장터 생어물(生魚物)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晉州南江)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③ 제6수와 제8수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13년 9월 시행 모평(AB)

예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山窓)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侵擄)하니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뜻이야 **잇을쏘냐** <제6수>

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④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12년 9월 시행 모평

예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아.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위 하노라. - 권구, 「병산유곡」

\* 백조 : 모든 새.

⑤ (나)와 (다)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며 / **시상을 전개**한다.

08년 9월 시행 모평

예 (나) 어둠이 오는 것이 **왜 두렵지 않으리**  
불어 닥치는 비바람이 **왜 무섭지 않으리**  
:  
너희 **왜 모르랴** 밝는 날 어깨와 가슴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는 걸 -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  
고기도 상관 앓거늘 하물며 너 **잡으랴**. - 안조원, 「만언사」

⑥ (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으로 /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07년 9월 시행 모평

예 (가)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 정극인, 「상춘곡」

(나)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 설정수, 「어옹(漁翁)」

⑦ **설의적 표현**으로 /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6년 9월 시행 모평

예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었느냐** - 윤선도, 「만흥」

영탄 vs 설의

	영탄	설의
형식	(!) → 강조	(?) → 강조
내용	감정의 폭발 → 강한 어조	강한 어조 or not

설의적 영탄 → 강한 어조

형식: 설의 → (?)  
내용: 영탄(감정의 폭발)

감흥(感興)

• 마음속 깊이 감동받아 일어나는 흥취

고조(= 심화)된 감정

⊖心 → ⊖心  
⊕心 → ⊕心

영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어조(분위기로) 판단

6. 영탄(詠嘆)

- 감정(슬픔, 기쁨, 분노, 놀라움 등)을 강하게 표현하는 기법
- ① 감탄사[‘아아’, ‘아으’, ‘오’, ‘어즈버’], ② 느낌표[!], ③ 감탄형 종결 어미[‘-(는)구나’, ‘-(로)구나’, ‘-노매라’, ‘-(이)도다’, ‘-르샤’]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기출 답선지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10학년도 수능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06학년도 수능

예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 박두진, 「청산도」

③ 영탄법을 활용하여 /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12년 9월 시행 모평

예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④ 감탄사를 사용하여 /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10년 6월 시행 모평

예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山茱萸) 열매—

- 김종길, 「성탄제」

## 7. 역설(逆說)

- 모순(상충)된 진술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법  
 ⇨ 역설이 성립하려면 2개의 논리가 있어야 하며, 그 논리들은 모순(상충)되거나 양립(兩立)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역설(力說)** :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 기출 답선지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10학년도 수능

예)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 / **번뇌는 별빛이라** - 조지훈, 「승무」

②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을 /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3년 6월 시행 모평(B)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1년 9월 시행 모평

④ ㉠은 역설적 표현으로 /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06년 9월 시행 모평

예) ㉠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 김지하, 「새」

## 8. 반어(反語)

-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는 기법

→ 기출 답선지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10학년도 수능

② 역설과 반어를 통해 /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8학년도 수능

③ [A]는 반어적인 표현을, / [B]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06학년도 수능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13년 9월 시행 모평(AB)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2년 9월 시행 모평

⑥ 반어적 표현으로 /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1년 9월 시행 모평

⑦ 반어적 표현을 통해 /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6년 9월 시행 모평

⑧ 반어적인 표현으로 /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05년 9월 시행 모평

### 역설 vs 반어

역설(paradox)	반어(irony)
모순 속 진실(진리)	겉뜻 ↔ 속뜻
모순 有	모순 無

### 역설적 표현 vs 반어적 표현

역설적 표현	반어적 표현
only 역설법	only 반어법

### '역설'의 대표 사례

- 예
- (1)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2) 찬란한 슬픔의 봄
  - (3) 외로운 황홀한 심사
  - (4)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 (5) 남은 갖지마는 나는 남을 보내지 아니 하였습니다.
  - (6)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7)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 '반어'의 대표 사례

- 예
- (1)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2)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  
우리는 점점 **진명**이 난다
  - (3)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후일 그때에 **"잊었노라."**
  - (4) 사창 여원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 (5)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속도에서 일정한 균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 평가원의 출제 방향

• 2003년부터 최근까지 평가원(수능&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역설'이나 '반어'와 관련된 답선지를 정답으로 처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 '도치' 쉽게 이해하기

- 서술어의 위치 확인  
- 서술어가 문장의 끝에 있지 않으면 도치에 해당

📌 도치?

예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9. 도치(倒置)

- 정상적인 **말의 순서를 뒤바꾸어** 내용을 강조하는 기법
- 우리말의 어순은 '주어 + 목적어(부사어, 보어) + 서술어' 순인데, 이들의 어순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특정한 문장 성분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

➔ 기출 답선지

① 도치의 방식으로 /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13학년도 수능

예 피하지 마라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 - 초설」

②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10년 6월 시행 모평

**주의**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땀뻘한 냄새가  
코를 땀뻘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

아직 서해엔 **가 보지 않았습시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시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 이성복, 「서해」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09년 6월 시행 모평

예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가물음 땅에 시머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 정지용, 「발열」

4 문장을 **도치**시켜 /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7년 6월 시행 모평

예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슭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오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김소월, 「나의 집」

10. 과장(誇張)

- 어떤 대상을 사실보다 부풀려서 표현하는 기법
- ‘향대(向大) 과장’과 ‘향소(向小) 과장’이 있다.

→ 기출 답선지

1 **과장된 표현**을 통해 / 머느리가 수행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13년 6월 시행 모평(AB)

예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찧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견고,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2 **과장된 표현**을 통해 /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06년 9월 시행 모평

예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巢父許由)\*가 약뚫더라\*  
아마도 인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 윤선도, 「만흥」

- \* 삼공 : 삼 정승.
- \* 만승 : 천자(天子).
- \* 소부 허유 :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
- \* 약뚫더라 : 약았더라.

📍 '과장'의 좋은 예

예 (1)  
비 개인 긴 강둑엔 풀빛이 질었는데  
남포에서 그대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리네.  
대동강 물은 그 언제나 다할런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하  
거니.**  
- 정지상, 「송인」

예 (2)  
개야미 불개야미 잔등 부러진 불개야미,  
입발에 정중나고 뒷발에 중기 난 불개야  
미, 광릉(廣陵) 샘재 넘어 들어 가람의 허리  
를 가로 물어 추켜들고 북해(北海)를 건넌  
단 말이 있습니다. 남아 남아.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남이 짐작하소서.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